

불교의 '진공묘유' = 기독교의 '삼위일체'



봉정암에서 바티칸까지
정동채 지음
동연 펴냄
1만6천원

정동채 前 문체부 장관이 동서양의 종교를 아우른 순례기를 펴내 화제다. 국회의원 3선 출신인 저자는 아태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등을 거처는 등 화려한 정치이력을 가진 현역이다. 저자는 이 자리를 잠시 벗어놓고 '자연인'과 '종교인'으로 마음과 믿음, 그리고 내려놓음의 길을 따라 떠난 순례길에서의 단상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바쁘게 산 그에게 이번 순례길은 자신을 반추해보는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됐다.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떠난 성지 순례를 비롯해 사찰 순례, 선 수행 체험, 부탄에서 접한 아이들의 미소, 지금은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과의 일화 등을 책에 실었다.

저자는 순례는 바로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는 것이고,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한다. 여행기처럼 가볍게 써내려 갔지만, 동서양 종교를 아울러 종교 평화를 꿈꾸는 그의 글은 깊다. 저자는 순례종교와 선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교리를 강제해왔고, 폭력과 살육을 신의 이름으로 거리낌없이 자행됐은 슬픈 역사에 대해 가슴 아파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군대가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없고, 강대국들이 평화와 환경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환경보호는 오직 종교인들의 양심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각각의 종교들은 개인의 해탈과 구원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을 위한 대승적 차원으로 자신의 목표와 활동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가톨릭 신자이다. 법정 스님이 농담처럼 던지신 “요즈음 천불종 신자들(천주교 신자이며 불교에 관심을 두는 종교인들이 늘어난다면서요)”라는 말을 예로 들으며, 자신의 종교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 수행하는 법으로는 불교의 내려놓음과 비움,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여불성’ ‘진공묘유’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순례길 중 봉정암에 올랐던 기억은 그의 종교관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안개비에 젖은 적멸보궁 사리탑에 마주 섰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성스러운 곳, 머리를 털어내고, 마음을 씻어내고, 가슴을 털어내는 기도인 탐진치 삼독서 벗어가기 소원했다. 탈씩 주저 않았다. 내가 나를 보니 이거 순전히 욕심덩어리인가 아닌가? 여기까지 기다시피 올라온 것도 무얼 바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복 달라는 기도는 언제 어느곳에서든 하면 되니 제발 여기서 만큼은 제대로 정신을 차려보고 싶었다. 늘 중얼거렸던 삼법인 화두를 읊었다. 한여름

이었지만 1200미터 고지에는 한기가 들었다. 으스스함이 느껴져 몸을 일으켰다. 부처님 뺨 조각에 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머리 숙이는 것이 올바른 절이란 걸 깨달았다.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모셔진 가르침이란 것도 알았다”

절해고도에 자리 잡은 수비아코 수도원 서 언은 단상, 알함브라 궁전과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짙어본 이슬람, 탁났한 스님·서웅 스님·대행 스님 등이 전하는 선지식도 소개한다.

정동채 前 장관 국내의 종교순례기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등 소개 “부처님, 마음안에 모셔진 가르침”

무실에는 십자가, 성모마리아상과 미륵보살상, 목탁과 목주 등이 이곳저곳에 모셔져 있어서다.

이외에도 저자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부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은 공경한다”고 답한다. 그는 불교의 공(空)과 무(無)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서 찾기도 한다. 저자는 “불교서 말하는 공의 의미는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며 그 자리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妙有)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하며 이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앙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정동채는?

1950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76년 합동통신사에 입사,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제작 거부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당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 중이던 한국 인권문제연구소 김대중 이사장의 공보비서로 일했다. 미국에서 돌아와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활동하며 정치부 차장, 여론매체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과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1994년 광주 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 마음의 짐 더는 첩경”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라

일문 스님 | 담앤북스 펴냄 | 1만4천원



3년 전 불영사 주지 일문 스님(사진)은 ‘만일영결회’란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스님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낸다. 주제도 그리고 소재도 오직 ‘마음’이다. 스님이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전변화하는 우리 마음에 언제쯤 찍어야 할지 아니면 언제 그 고삐를 당겨야 할지 알려준다. 문자메시지는 소문의 소문을 거쳐 이제 하루에 2천여 명이 매일 아침 8시 30분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는다. 우리는 마음을 잘 모른다. 하

지만 스님은 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스님은 이 책에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바람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의 움직임으로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건 이미 지나간 일을 갖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고뇌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오지 아니 한 일은 미리 격정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스님은 수없이 강조한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점을 찍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스님이 내놓은 진단은 ‘현재’에 집중하길다. 그것이 마음의 ‘짐’



3년동안 '마음법문' 문자 발송 경전구결 인용한 치유 메세지

을 털어버리는 첩경이라고 말한다. 이 아름다운 세상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인연을 맺어 왔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세상에 함께하는 모든 존재

들이 나와 같은 본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내가 둘이 아닌 진리의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라는게 스님의 생각이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깊은 감사와 영광과 축복을 보낸다는 말도 덧붙인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착각서 벗어나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라고. 이처럼 이 책은 우리에게 주는 스님의 해법이자 치유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혹여 ‘마음’에 대해 무겁게 다가 갈까봐 혹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 우려했는데 스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경전 구결 하나하나를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용구들에 덧붙여 스님이 알고, 진단하고 치유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50여 컷의 일러스트와 잘 버무려져 책장이 술술 넘어가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문장의 정확한 해석에 주안점 둔 옛 조사들 화두 48

무문관

안재철, 수암 공저 | 운주사 펴냄 | 2만3천원



《선종무문관》이라고도 하는 이 책은 옛 조사들로부터 내려오던 선어록 중 공안 48칙을 뽑고, 무문 자신의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48개 화두에 평창과 송을 덧붙이고 있다. 이 평창과 송은 참선자들의 쓸데 없는 지식과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고 그 핵심에 다가가기로 지도한다.

이미 다수의 무문관 번역서와 해석서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그 내용이 가리키는 종지에 치우치다보니 원문에 대한 정확한 문법적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번역되고, 또 그에 근거한 해석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무문관은 선승과 학인의 대화 대부분이며, 당대의 상황에 맞게 주고받은 말의 기록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일상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세월이 지나 언어의 용도가 달라지고, 문자에 뜻이 첨가됐으며, 문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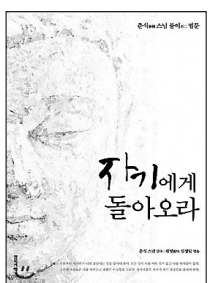
도 역사적으로 많이 변화했다. 또한 그때의 상황마저 달라져 문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선어록을 읽으려면 당시의 언어와 상황,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중문학계에서는 불교 자체에 대해 별 관심을 쏟지 않고, 불교학계에서는 그 연구 대상을 주로 불교철학에 둘 뿐 언어를 따지는 것은 마치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여겨, 중국언어학에 크게 관심 두지 않는다. 다행히 제주대 중어중문과 대학원생 《선시특강》 《선어록연구》 등 불전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 불교와 근대언어의 사후와 문법 등을 강의한다. 이 책은 강의 중 텍스트로 사용한 것으로, 문법에 관한 것은 중국언어 전공자인 안재철 교수가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수암 스님이 천착해 해석했다. 이렇듯 이 책은 선사들의 깨달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정확한 해석에 주안점을 뒀다. 왜냐하면 원전을 제대로 읽어볼 수 없다면 선사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문법에 따라 살펴지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의 선적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문법 해석과 예문 등을 통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을 꾀했다. 철저한 문법 해석을 통해 원문의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 책은 깨달음의 문을 연 선사들의 속내에 대중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참 깨달음

자기에게 돌아오라

심성일 엮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2천원



부산 금정산 대덕사에 주석중인 춘식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첫 책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존재의 실상을 알려준다. 스님은 바깥의 헛된 모양에 속지 않고 본래 있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며 참된 불교라고 말한다. 자기 바깥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역설한다. 시인이 오면 시를 읊고 검객이 오면 검을 논한다. 이것이 바로 선(禪)이라고 칠순의 노 선객은 말한다. 선이란 어떤 정해진 규격이 없다. 삼라만상이 자유자재하게 드러나듯이, 나고 죽을,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불평이라 하기 이

전에 본래 ‘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다.

일상의 소란스러움에 떠밀려 밖으로 험뎌며 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춘식 스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기라는 한 물건을 돌아보라 말한다. 자기는 이미 자기이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으며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다. 깨달음이란 엉뚱한 것을 나로 알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게로, 생각과 감정, 삶과 죽음에 영향 받지 않는 영원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스님은 제자들이 작은 깨달음을 멈추지 않고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지도하며, ‘이렇고’ ‘마삼근’ 등의 화두를 바르게 참구하는 법을 비롯해 구도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자기에게 돌아오라’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돈법만을 전한다’ 등 건성성불이라는 피안으로 인도하는 60편을 묶었다. 김주일 기자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활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기감 체험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기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기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호흡법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나는 본래 부처인 나다

- 절, 염불, 독경, 다라니, 명상, 수행시 가슴, 어깨로 들숨하면 100% 상기병, 화병, 냉병 걸린다. 조심하라!
- 영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야 심매 이룬다.
- 허가입전장을 탁탁 치야 생병일 일깨우는 진짜 건강법이다.
- 단전복식호흡이 저절로 되어져야 우주 태양, 지구 땅의 기운 모이고 둘러져 승승화강 된다.
-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기쁜 온몸로 심신이완 되어야 번뇌가 뚝 떨어진다
- 수행, 운동, 등산, 공부, 일, 사우나 피곤하고 졸리면 호흡불량 100%

※ 건강법
귀에 소리나고·안구건조 비염 입안 열고·머리 뜨겁고·혈통 붉고 검고 손 발 배 차갑고 저리고·허리 무릎 손마디 검고·혈압 높고·가슴 답답 터질 것 같고·불면증 우울 공황장애 과외호흡 즉석에서 100% 효과

www.법왕정사.net
상담 ☎ 010-3487-0035

죽지 않는 천하대도 갑오년 윤달든해 음력 5월 20일과 21일 자오시에 양 6월 17일, 18일 일체 새로운 종교가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정법안장 대법회 및 120세 360세 도전하여 죽지 않는 생사해탈 득도법. 전무후무한법 전수

우주의 빛으로 120세 360세 1080세 증상대운으로 병 없이 사는 천지공사에 동참하시어 3년을 더 사는 것도 원이 없는데 천지공사로 하늘의 진법 빛으로 늙지 않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증상대운 상생법인 마음에 문을 여는 진법을 만천하에 환생태일대사는 전하오니 마음을 열고 따라 오는 자 장수하는 비법을 받으시어다. 지구촌 일체종교가 발생한 것은 마음 근본으로 종교가 하나로 되는 신자로 도법에 생애지문이 심자이고, 불교는 정법 인정이 심이며 유교는 성리가 심이고, 도교는 황정의 문이 심이며, 카톨릭은 거존율이 심이고, 오해는 중아정위가 심이고, 주역은 정이거가쳐 심이며, 명덕은 공자시중이 심이다. 이 마음심자로 모든 종교가 탄생되었으며 천지공사로 마음을 여는 도법에 윤명명부공사 법을 이어 받아 직업에 구애받지 않은 도통 공자 되시며 병겁을 넘기는 스승되어 중생을 구하소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지식이나 도인들이 진법의 천지공사 근본도 모르면서 각종 종교를 빙자하여 천지개벽 천기누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각종교주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기만하였기에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여 철퇴를 맞았고 남이 써놓은 글자에 도통한 것도 아닌 글로 백성들을 제도하네 극락이 내 천당을 찾으니 하늘이 그냥 두겠는가. 이제 지구촌 병겁으로 각종재난과 질병, 화산, 지진, 비바람, 병겁재난으로 하늘을 속이고 부모조상 무신한 업연으로 고통당함을 면하느니 경신법회가 양력 6월 17~18일 양일 자오시에 마음과 현문을 열려 주인공을 보는 소울용우는 수행체인 유폴선 미륵달마경신도통회로 갑오년 360세 갑오세 병겁에 도인되어 살 수 있는 빛을 받는 도량으로 가보세... 빛으로 각종 병을 다스려 죽지 않고 오래 장수하려면 동참하시어 이 진법법을 받아 증상대운으로 오래사시소.

■ 건강장수 정법안장 수명연장 심경신
동참금 일금 10만원, 간편한 옷, 필기도구 지참.
무박 2일
■ 갑오년 윤달 든해 생전유세주 조상천도 구병시식 백중대제 맞이는 6월 17, 18, 하늘 땅이 열리고
구전에 모든 영가들이 해원상생하는 경신일에 백중제 77제를 조상오대 외가 삼대 친정 오대 외가3대, 조상영가, 모태영가, 유산영가, 청춘빙의영가, 유산 수태영태아영가, 구대선양, 오대조상, 사대부조상을 해원상생의 진법으로 본 종단만이 계론, 시론, 생천론경과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헌식 진언으로 해원상생 왕생극락하는 금년 백중 칠월제 49제를 드려야 명부공사 팔신공, 도천영, 천부팔력으로 이생에 수역, 조격, 총역 인간으로 태어나는 도리를 환생태일대중사만이 하는 백중 기간중 해원상생시키어 집안들에 고통과 모든 고액과 심재팔란 불행한 일을 모두 제도하여 꿈속에 조상을 만나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진광진법으로 천도하오니 동참하시어 천복대운 받으시어 만사통행하시고 살아있는 효도효행하소서.

■ 기도일제 : 2014년 6월 17일(음 5.20) 화요일
■ 기도해제 : 2014년 6월 18일(음 5.21) 수요일
■ 자손만대 부귀영화 문무점점득하는 전무후무한 49제 동참비 25만원 (차가,진정,외가,조상일제) 사대부일제 77제(농협 029-01-167866 국한영)

전화 : 02)821-6622 / 7767 휴대폰 010-3239-3110 010-2481-3110/010-8533-1601 팩스 02)821-7768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60-188호 지하철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천지공사 불선도 미륵달마 심경신 도통회 총본산
신폴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태영의 집 진법선언 환생선통진언 테일대사